

예산안 지각 처리... 10일부터 임시국회

여야는 3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집근점을 보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향과 앞으로의 심사일정에서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16개 국회 상임위 중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가 7개에 불과한 만큼 김경원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서라도 당장 금주부터 예결위를 정상화, 예산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이후 내주부터 예결위 심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 여야 간사인

심사일정 등 여야간 입장차 커 난항 예고

한나라, 국회의장에 '심사기간 지정' 요청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까지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에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예산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심사기간 지정'이란 국회의장이 예

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각 상임위에 조속히 심사를 마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심사기간이 지정되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예비심사가 미진한 상임위는 예결위 활동과 병행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4일 오후 2시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의사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당은 결코 굽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4대강 사업 예산 중 대운하 준비 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 및 보설치 예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차지원비용 800억원 등 대략 3조원 이상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4일 오후 2시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의사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현 무등경기장 일대를 야구타운으로”

강운태 의원 “축구장 헐고 개방형 새 야구장 건설” “시민들 높은 지지 따르겠다” 사실상 시장출마 밝혀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3일 광주 돛 야구장 논란과 관련해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헐어 인천 문학경기장 수준의 개방형 야구장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구경기장을 2만5천석 규모의 제1야구장으로 신축하고 현 야구장은 제2야구장으로 보강해 전국 유일의 명품 야구타운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 공항 이전 논란에 대해 “대승적 차원

에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광주 시민 누가 무안공항을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주요 이용자인 광주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이 강구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만큼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보다는 광주 시장이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



위를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내러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경쟁자인 박광태 시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의 답답함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출마 의사를 비친 이영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오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지지도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경선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치테러 사라져야”

3일 필리핀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한 남성이 정치테러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을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정치테러에 참여한 한 민병대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조영택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 추가 확보”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은 3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맨션 주변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안건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내방동 솔피타운-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농성동 제일파크맨션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5·18 추모곡 배제 이해안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3일 국회 정부우 전제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지난 1997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민은 자연스럽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추모곡으로 인정하고 애창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식 추모곡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의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기념추모곡을 만들겠다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추모곡 인정 여부와 함께 당연히 5월 단체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국강현 광산구의원 무혐의

○광주 공군 탄약고 이전 관련 의혹을 제기해 광주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광산구의원 국강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28일 광주시청에서 탄약고 이전 대책위가 진행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문제가 돼 광주시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광산구의원 국강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 통보를 해왔다”며 “광주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단체장 후보물

오늘부터 배부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발송을 할 수 없다.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 밖에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

“보즈워스 방북은 6자회담 재개 위한 것”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밝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6자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의 방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 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밝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며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추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6자회담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

홍스케이스 이태리가구

1. “전국만 발매된다면 가격만 절반 줄다” - “방탄 모자 신제품”

2. 자갈거구 개회 대부분은 상품대물 특별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노트북, TV 등)

3. 홍스케이스 (HONGSKEIS)는 11월 11일 MAINTENANCE 전 행사 (장바구니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료 무료 배송 서비스)

4. (HONGSKEIS ITALY-MADE)는 11월 11일, 이탈리아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산 커피, 이탈리아산 와인 등)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입력 부지 대비 전력생산가격 7~9배 상승 예상

1.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건물 옥상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전력을 건물 내부로 공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건물 옥상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전력을 건물 내부로 공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건물 옥상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전력을 건물 내부로 공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건물 옥상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전력을 건물 내부로 공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621575-6259

010-2614-5145